

영국 왕실근위대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연구

방 환 복*

〈요 약〉

이 연구는 1660년부터 지금까지 350여년이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왕실근위대의 변천사와 조직구조, 임무에 관한 조사와 함께 왕실근위대 교대식과 한국 수문장 교대식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왕실은 영국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써 350년 동안 왕을 호위하는 왕실근위대가 존재해왔다. 왕실근위대는 영국 육군 소속의 정규군으로 현재 2개 기병연대와 5개 보병연대를 비롯하여 왕립기마포병대 등이 하나가 되어 왕실근위사단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임무는 크게 구분하면 왕을 호위하고 궁 경비, 국가 의식행사에 동원되는 임무 외에 최정예 부대로 전투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국의 왕실근위대와 한국 수문장 교대식 비교에 있어서는 왕 호위, 궁 경비 등과 전통 계승 차원이라는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고, 반면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 광관상품화 과정, 전담조직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왕실근위대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이미지로 잡아온 반면, 한국 수문장 교대식은 사적자료의 고증을 통한 문화재연 행사로 전통계승, 관광산업적 측면을 강조해왔지만, 세계의 유일한 독특한 왕실 호위 및 경비 문화를 전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콘텐츠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왕실근위대, 근위기병대, 근위보병대, 왕궁 경비, 가드 교대식

* 경북전문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겸임전임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II. 영국 왕실근위대 조직과 임무
III. 영국 왕실근위대와 한국 수문장 비교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
|--|

I. 서 론

영국하면 연상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곰털모자(Bearskin)를 쓴 영국 왕실근위병을 쉽게 떠올리게 된다. 영국의 역사군사전통을 대표하는 근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 여왕이 거주하는 버킹엄 궁 앞에는 항상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이식, 전원경, 2007:84). 이처럼 왕실 근위병 교대식은 영국 여행의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상품이 되었으며,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도 교대식이 존재하지만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웅장하다(박배낭, 2006:150). 교대식 이외에도 퍼레이드와 국가 중요 의식행사에 여왕과 함께 등장하는 왕실근위대는 영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국의 역사군사전통을 알리는 동시에, 자국민들에게는 찬란했던 대영제국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있다.

영국 왕실을 좀 더 이해하면 왕실근위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의 나라로서 국왕은 국가 원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다양한 의전행사를 통해 수상의 의전적 부담을 덜고 있다. 또한 영국 내에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아일랜드의 4개의 연합국에 대해 구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50개국에 달하는 영연방국가의 상징적 수장으로 영국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민진, 1999:249-250). 이와 함께 국왕 호위, 궁 경비, 국가 의식행사 참여 등의 역할 외에, 필요에 따라 전쟁에 투입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왕실근위대이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에서

는 영국과 같은 근위대가 존재하지만, 그 명성이 높은 것은 한 예로 살펴보면 근위기병대와 같이 기마의전과 기갑수색의 두 가지 임무를 모두 맡는 정예부대의 현역 장병으로 구성되어, 기갑수색부대는 장갑차나 경전차를 타고 적 후방 깊숙이 들어가 교란작전을 펴거나 지뢰를 제거하며 이군의 진격로를 확보하는 특공대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중앙일보, 2006).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각 시대의 왕을 호위하고 궁을 경비하던 군대가 존재했음은 이미 많은 사적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순종을 끝으로 더 이상의 왕실과 호위군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조영갑(2005:221)에 의하면 대한제국시대인 1907년 8월 1일에 일제의 압력으로 군대가 해산되게 되는데, 이때 병력은 서울에 장교가 336명, 사병 9,460명, 진위대 장병 4,270명으로 총 14,066명이었다고 한다. 이후 군대는 그 기능과 규모가 축소되어, 황실을 호위하는 근위보병대와 근위기병대만 소규모로 존재하다가 1909년 군부마저 폐지되고, 일제의 친위부가 설치되게 되었다. 1910년에는 한일합방으로 국권이 침탈되면서 기존에 있던 근위보병과 근위기병은 재편 혹은 폐지를 거듭하다가, 1931년 4월 1일에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오던 보병대가 예산을 빌미로 완전히 해산되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뒤로 한 채 1995년 서울시는 영국 버킹엄 궁의 근위병 교대식과 러시아 모스크바 광장의 위병교대식처럼 서울에서도 수문장 교대식이란 관광상품을 기획하게 되었다(동아일보, 1996:29면). 서울시에서 행하는 교대식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절차와 의상, 계급 등에 대한 고증을 거쳐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냄으로써 이제는 서울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김지현, 박성수, 2005:72).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축제에서도 수문장 교대식 재현 행사를 마련하고 있고, 전통문화의 교육적 요인을 활용함과 동시에 전통문화를 관광 자원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재현 행사를 진행해오면서 고증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관광자원 측면으로서의 콘텐츠개발로만 집중되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국 왕실근위대에서 행하는 교대식뿐만 아니라, 호위, 경비, 의전, 국가 안전 수호라는 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관광자원 차원을 넘어 그 나라의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적으로 영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으로 볼 때 우리의 수문장 교대식과 같은 문화재현 행사가 관광자원으로만 활용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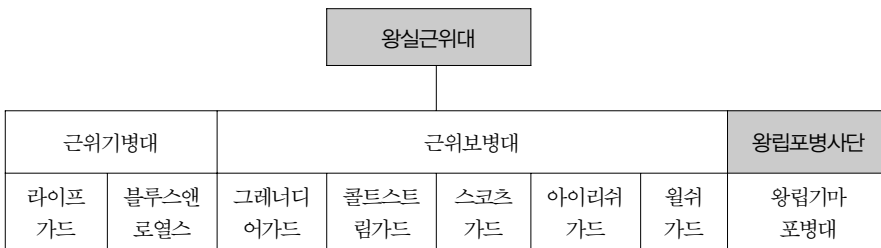
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 왕실근위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본 연구는 1660년부터 지금까지 350여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 왕실근위대의 변천사와 조직 구조, 주요임무 등을 분석하고, 1995년 서울시가 영국 근위병 교대식을 벤치마킹하여 기획한 국내 수문장 교대식과 영국의 그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영국 왕실근위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示唆點)을 도출해냄으로써 이를 토대로 우리의 과거 왕실호위문화를 계승한 현대적인 국가의전문화 개발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 논문, 관련서적, 정부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내용 부분에 있어서 국내와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수집하기는 용이하였으나, 반면 영국 왕실근위대에 대한 자료는 국내에 전무한 실정인어서, 해외서적, E-Book, 기사 등을 참고하였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부, 육군, 왕실, 근위대 등의 공식홈페이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II. 영국 왕실근위대 조직과 임무

영국의 원수인 왕을 포함한 가족이 기거하는 궁 경비, 왕 호위, 국가 의식행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근위사단, 근위연대, 근위대로 호칭하고 있다. 오늘날 영국의 왕실의 안위와 국가의 위엄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왕실근위대는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왕실근위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165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러 조직이 창설, 변경, 해체라는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림 1〉 왕실근위대 조직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실근위대의 조직은 크게 근위기병대, 근위보병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왕립 기마포병사령부하에 소속에 있는 왕립 기마포병대를 두고 있다. 왕실근위대장은 런던 관구(London District) 사령관을 겸한다. 관리 단위로 근위사단(Guards Division)은 휘하에 근위보병 5개 연대와 예비역 부대인 국방 의용군, 런던 연대(London Regiment)를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식 때 국왕·여왕의 호위를 맡는 Sovereign's Bodyguard라는 부대와 육군음악군단 소속에 밴드가 각 연대와 행동을 같이한다(Simon Dunstan, 1996).

1. 근위기병대 조직과 임무

근위기병대(Household Cavalry:HCav)는 영국 기갑군단의 고위 연대로써 라이프가드(Life Guards)와 블루스앤로열스(Blues and Royals) 두 연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연대는 전통을 존중하여 복장, 연대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1994년 군대 재편과 함께 동일한 인원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 연대의 모토는 “악을 생각하는 자는 수치가 있을 것이다”를 모토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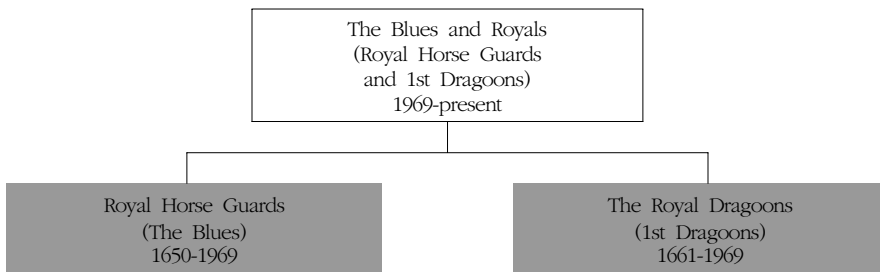
연대장들은 “골드스틱(Gold Stick)”의 직책을 받게 되며, 교대로 여왕의 수행원을 맡는다. 여기에 근위기병대 지휘관으로 “실버스틱(Silver Stick)”의 직함까지 주어진다. 두 연대의 역사와 임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에 창설된 라이프가드(Life Guards)의 시초는 헨리 1세를 축출하고, 영국 유일의 공화정부인 영연방을 세운 리버크롬웰의 사망으로, 장로파를 중심으로 한, 반 크롬웰 세력이 대륙에서 망명(1652~59) 중인 헨리 2세가, 본토로 돌아오는 동안 왕을 보호하기 위해 호위병들이 스스로 군대를 창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660년에 그들은 왕이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보호하였다. 비록 본 연대가 이름, 설립 등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영국 군대 중 최고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들의 상사(Serjeant)라는 계급을 “하인”이라는 의미가 있어 이를 거부하고, 전통적으로 사용된 상병으로 호칭하고 있다. 1788년에 본 군대가 재편성되면서 라이프가드 제1연대와 2연대로 형성되어 1922년까지 유지되었다(Ian F.& W. Beckett, 2007:24~25). 그 후 1922년에는 라이프가드 제1연대와 2연대가 통합되어 지금의 라이프가드가 된 것이다.



〈그림 2〉 라이프가드와 블루스앤로열스 사열장면

(출처 : 위키백과, 2014)



〈그림 3〉 The Blues and Royals 통합과정

(출처 : 영국육군)

블루스앤로열스(The Blues and Royals)는 1650년에 올리버 크롬웰이 창설한 강력한 흉갑기병연대(New Model Army)와 1660년 왕정복고(王政復古)로 재위한 찰스 2세가 상비군(드라군부대)을 통합해 로얄호스가드 연대(Royal Regiment of Horse Guards)가 되었다((주연중, 2010:174); Paul Stevens, 2008:24-25). 찰스 2세는 그들에게 “Our Own Regiment of Dragoons”으로 칭함으로써, 그 어떤 연대보다 최고로 인정했다 한다. 조지 3세 때에는 제복 색상에서 옥스퍼드 블루스(Oxford Blues)의 통칭을 받게 되며, 왕으로부터 각별한 총애를 받은 연대로 기록하고 있다. 1746년에 로열홀스가드블루스로 개명된 후, 1813년 근위기병대로 승격되어 지금의 라이프가드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821년 왕실 근위기병대의 일원으로 로열홀스가드(블루스)라는 명칭이 주어지고 1969년 기갑연대로 유명한 The Royal Dragoons(1st Dragoons)와 통합되어 1991년에

블루스앤로열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들의 계급은 라이프가드와 동일하며, 연대 선임하사(Regimental Corporal Major)가 1등 준위 상당하는 격으로 실제 그에 맞는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라이프가드 연대에도 없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계급 호칭으로 소위를 코넷(Cornet)이라 한다.

근위기병대는 업무 편제에 따라 각 연대는 3개 중대 편제에서 2개 중대는 HCR(Household Cavalry Regiment)을 구성하고 FV107 시미타, 팬더 CLV, 자칼 코요테 등의 기갑 전투 차량을 이용하여 제16항공 강습 여단을 포함하는 제3사단에 대해 장갑 정찰 능력을 공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나머지 각 연대의 1개 중대는 HCMR(Household Cavalry Mounted Regiment)을 구성하고 주로 왕 호위, 궁 경비, 의식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Charles Heyman, 2011:66-68).

HCR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적이 있으며, 그들의 전투 능력은 국제 평화의 유지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활동을 전개 등의 역할에 수행하고 있다(근위기병박물관, 2014). HCMR의 임무에 대해 그들은 왕실의 호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윈저 성 또는 버킹엄 궁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HCMR은 런던의 나이즈브리지, 하이드파크 병영에, HCR은 윈저 성의 Combermere 병영에 근거하고 있다.

2. 근위보병대 조직과 임무

근위기병대를 제외한 보병연대(Foot Guards)는 그레너디어가드, 콜드스트림가드, 스코츠가드, 아이리쉬가드, 월쉬가드 5개 연대로 구성되어 있다(레바캉스 편집부, 2003:188). 그레너디어가드, 콜드스트림가드, 스코츠가드 연대는 제1대대, 군악대 외에 중장 중대가 배치되어 연중 런던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강화 중대의 명칭은 그레너디어가드의 네이메헌(Nijmegen) 중대, 콜드스트림가드의 제7중대, 스코츠가드의 F중대이다. 이외 보병연대의 제1대대는 3개 소총 중대, 지원중대(정찰 소대, 대전차 소대, 박격포 소대, 저격 소대), 대대 본부중대(수송 소대, 위생반, 통신 소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각 보병 연대의 역사와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레너디어가드(Grenadier Guards)의 기원은 청교도 혁명에 의해 대륙에 망

명중인 찰스 황태자(후의 찰스 2세)의 호위대로 1656년에 브뤼헤에서 발견된 로드웬트위스 근위보병연대와 1660년 창립된 존러셀 근위보병연대가 1665년에 통합되어 근위보병 제1연대가 되었다(Fraser & David, 1998:6). 워털루 전투(Battle of Waterloo)에서 프랑스 최정예 부대로 유명했던 황제 척탄병 연대를 제압함으로써, 1815년에 처음 척탄병 근위보병연대로 개명되어 척탄병의 상징인 곰털모자를 착용하게 되었다. 이후 모자는 콜트스트림가드와 스코츠가드에서도 1831년부터 착용하게 되어, 현재는 영국 근위보병의 상징이 되고 있다(David Fraser, Illustrated by Angus McBride, 2002:4-8). 신병들은 일반적으로 영국 북서지방에서 모집되고 있으며, 1994년부터 근위업무에 임하는 병사들은 런던 웰링턴 병영에 있는 네이메헌(Nijmegen) 회사에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그레너디어가드협회, 2014). 1993년까지 제1대대의 3개 중대 중 교대로 1개 중대가 런던의 네이메헌에 소속되어 버킹엄 궁과 윈저 성, 세인트제임스 궁, 런던타워 등에서 근위 및 공식의식 임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2개 중대는 훈련이나 기갑 여단에 파견되어 워리어 장갑차 장갑 보병 중대 또는 챌린저 전차의 전차 중대 임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연대는 모토를 “악을 생각하는 자는 수치(부끄러움)가 있을 것이다”로 정하고 있다(Ira Rutkow, 2010:177).

둘째, 콜트스트림가드(Coldstream Guards)는 크롬웰의 신형군(New Model Army)에서 유래되어 가장 오래된 연대로 유명하다. 찰스 1세가 실각하고 청교도 혁명 후 의회주의자에 있던 몬크의 보병연대(Monck's Regiment of Foot)로 1650년에 창설되었다. 몬크 기병부대는 후에 라이프가드 2중대가 되었다. 왕정복고(王政復古) 시 스코틀랜드의 콜트스트림에 잉글랜드 공화국의 부대로 주둔하고 있었지만, 왕당파와 결탁하여 찰스 2세의 런던 입성에 동행했다. 따라서 현재에도 모병 때는 영국 북동과 남서지방에서 모집되며, 잉글랜드 출신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 지금의 연대명인 콜트스트림은 이 마을에서 따온 것이다. 1661년에 The Lord General's Regiment of Foot Guards 연대, 1670년 2nd or Coldstream Guards 연대로 개명된 후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Charles Grant & Illustrated by Michael Roffe, 2005:3-6).

이 연대의 모토는 “2등은 없다(Frank Clark, 2013:236)”로 첫째 임무는 짧은 시간에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전쟁, 반란, 평화 지원과 시민 구호 등의 임무에 투입하는 것이다. 그 예를 보면 북 아일랜드, 발칸 반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걸프전, 쿠웨이트에 파견된 바 있다. 둘째 임무는 왕 호위, 궁 경비, 관혼상제와 여왕의 생일 등의 의식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제1대대는 600명의 엘리트 병사로 구성되며, 두 번째 임

무를 수행하는 7중대에 병사 100명은 런던에 상주하고 있다. 연대 본부는 런던 웰링턴 병영에 배치되어 있으며, 모토는 “2등은 없다”로 설정하고 있다(Frank Clark, 2013:236).

셋째, 아가일(Argyll)주에 후작 아치볼드(Archibald)가 찰스 1세의 명령에 따라 1642년 스코츠가드(Scots Guards)가 창설되었으나, 1651년 청교도 혁명에 의해 해체되었다. 이후 찰스 2세가 1661년 왕정 복구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스코츠가드가 연합왕국군의 일원으로 합류한 것은 1686년이다. 1712년에 근위보병 제3연대(3rd Regiment of Foot Guards)로, 1831년에는 Scots Fusilier Guards로 개명된 후 1877년에 다시 스코츠가드가 되었다. 워털루 전투에서 스코츠가드 연대와 함께 적진에 고립되면서도 중요한 거점인 Château d' Hougomont를 지켜낸 바 있다. 이 연대는 근위병 업무와 전투보병의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제1대대는 2015년까지 노스요크에 주둔하고 있으며, 탱크 방어, 정찰, 무기지원 임무를 맡고 있으며, 박격포와 기관총 소대, 그리고 HQ company로 구성된다. 런던에 위치한 F company는 독립적인 작은 연대를 형성하여 버킹엄 궁, 윈저 성, 런던타워 등의 가드 업무를 담당한다. 연대의 모토는 “나를 해치는 자에게 벌을 주고 말리라”이다(James Lear, 2013:250). 이 연대는 드럼대 이외에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파이프대가 별도로 있다.

넷째, 아이리쉬가드(Irish Guards)는 보어 전쟁에서 영국인 연대의 용맹함을 인정받아 1900년에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창설되었다(Bartlett Thomas & Jeffery Keith, 1997:380). 사열과 분열 행진 때 아이리쉬 울프 하운드를 데리고 나온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제2군의 주력인 제30군단의 최선봉의 책임을 맡았다. 1999년에 코소보에 파견된 적이 있으며, 1992년까지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근위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군 개편 이후 왕 호위 및 궁 경비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Irish Guards, 2000:3). 정보병 성격을 띤 아이리쉬가드는 콜드스트림가드와 업무를 교대로 하고 있다. 스코츠가드와 같이 공식행사시 드럼대 외에도 파이프대를 동반하며, 모토는“누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가?”이다(Peter Doyle & Chris Foster, 2010:86). 연대는 과거 보어전쟁 투입되어 공적을 세우는 한편 2차 세계대전 참전,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쿠웨이트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현재 Aldershot의 Mons병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섯째, 월쉬가드(Welsh Guards)는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2월 26일 조지 5세에 의하여 United Kingdom의 보병기갑연대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창설된 부대

다(Toby Harnden, 2010:11-12). 설립 당시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설립 반년 후에는 프랑스로 급파되었고, 2차 세계 대전시에는 영국 해외 파견군(BEF)에 속하며 아라스 전투 및 케르크 전투에도 참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이라크, 보스니아,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에 전투 임무에도 투입되었다. 현재 이 연대는 런던 웨스트에 위치한 Hounslow에 기반을 두고 왕 호위, 궁 경비, 의식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토는 “웨일스여 영원하라”이다(Lincoln Hallinan, 1995:206).

3. 왕립 기마포병대 조직과 임무

왕립 기마포병대는 1793년 기병부대와 행동을 같이 한 포병으로 왕립 포병(Royal Artillery) 휘하에 2개 중대로 편성되었다. 나폴레옹 전쟁시 로켓 중대 등이 추가되었지만, 1816년 전후에 폐지되었다. 1855년 기병여단으로 재편되었다가, 1947년 조지 6세에 의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부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W. Y. Carman, 1973:37-40).

현재 왕립 기마포병사령부 하에 실전 부대 3개 연대와 왕립 기마포병중대로 구성되었다. 근위기병대가 여름캠프에 있는 한 달 동안 근위기병대 임무를 대신하기도 한다(By Wikipedians, 2014:115). 주 임무는 여왕의 생일, 에딘버러 공작 생일, 왕자의 생일, 대관식의 날, 현충일, 의회개회, 군사 장례식 등에 참여하여 예포발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포발사는 주로 하이드파크, 그린파크, 런던타워에서 이루어지며, 발사횟수는 행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외에도 영토 방어의 일환으로 남녀 병사들이 실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전투 병력으로 배치된 바 있다(Defence News, 2010).

4. 기타 조직과 임무

왕실근위대 외에 기타 조직도 왕실과 함께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국가 의식행사 및 후원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군주(Sovereign 's)를 직접 경호하라는 의미의 Sovereign 's Bodyguard는 영국 군 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재향군인 등이 임명되는 명예직이며 임무는 순수하게 의전 업무만 하고 전투 현장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둘째, Queen 's Body Guard of the Yeomen of the Guard는 영국 국왕 헨리 7세에 의해 1485년에 설립되었다. 위병으로 선발되려면, 육군, 공군, 해병대의 고급 하사관이며, 최소 22년의 군 경력과 선행장을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 해군 출신은 될 수 없다. 그 인원은 50명이었는데 현재는 79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원래 왕의 곁에 근접에서 바디가드의 역할은 물론 전쟁에도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18세기에는 왕을 피살하려는 꾀한으로부터 보호한 기록이 있다. 현재 이들은 세인트 제임스 궁에 있으면서 의식행사인 대관식, 의회개회, 외국원수방문 등에 참여한다. 의회가 개최될 때 이들은 1605년 11월 5일 국회의사당에 화약음모사건 이래로 관례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궁의 천장을 뒤진다(예오맨가드, 2014).

셋째, Her Majesty 's Bodyguard of the Honourable Corps of Gentlemen at Arms는 공적이 있는 군인이 임명되어 의식 때 국왕·여왕을 호위하는 명예직으로, Queen 's Body Guard of the Yeomen of the Guard가 해군 이외의 상사에서 선출되는 반면, 해군을 포함한 장교가 임명된다.

넷째, Royal Company of Archers, the Queen 's Bodyguard for Scotland는 스코틀랜드의 의식 때 국왕을 호위하는 명예직으로 1676년 사적인 양궁클럽으로 설립되어, 1703년 재건, 조지 4세 시대 1822년부터 호위 임무에 종사하고 있다. 입대 자격은 스코틀랜드 사람 또는 스코틀랜드와 연관이 깊은 인물들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다섯째, 영국 왕실근위대에서 이미 퇴역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들을 주축으로 별도의 연대별 후원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근위병들은 국가의 의식의무 외에도 전쟁에도 참여하여, 때로는 저격수와 숨겨진 폭발장치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왕실과 국가를 위해 그들이 임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왕립 기마포병을 제외한 모든 연대는 근위기병재단, 그레너디어가드협회, 콜드스트림가드협회, 스코츠가드협회, 아이리쉬가드협회, 월쉬가드협회 라는 6개의 후원조직이 현재 활동 중이다. 이 후원조직은 근위병 사상자와 및 부양가족을 지원할 뿐 아니라, 뉴스레터 발간, 고용문제 해결, 추모행사 및 이벤트 개최 등을 해오고 있다.

Ⅲ. 영국 왕실근위대와 국내 수문장 비교 분석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에는 왕실근위대가 실존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궁궐을 수비하고 왕을 호위하던 다양한 조직이 존재했다는 사적기록과 연구물이 있을 뿐, 오늘날 왕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과거의 호위제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과거 왕실호위는 사적자료를 근거로 복원되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담은 문화재현행사로 표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5년 서울시에서 영국 근위병을 벤치마킹해서 시작된 “수문장(守門將) 교대식”이다. 수문장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서울은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과 많은 인구가 사는 터전으로써 궁성과 궁궐의 방위는 중요한 과제였다(심승구, 1999:3). 따라서 당시 상당히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는 호위, 경비 체계의 한 분야로 도성문과 궁궐문 개폐에 따른 경비업무가 중요하게 대두되어 이전에 있던 조직을 더욱 전문화하는 수문장 제도가 예종 1년(1469년)에 설치되었다. 제도초기에는 20명에 불과했던 수문장이 선조 25년(1592년)에는 50명으로 증가되고, 선조 27년(1594년) 임진왜란 때에는 430명에까지 이른 적도 있다(선조실록, 1616).

광해군일기(1653)를 살펴보면 광해 13년(1621년) “양궁(경희궁, 경덕궁)의 두 문에 수문장이 들어가 거처할 수 있는 임시건물을 속히 완공하여 수문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지키도록 해서 궁궐의 체모를 이루도록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2년(1620년)에는 “왕실의 신변과 안전,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목(事目)을 엄하게 다스리고, 출입에 신부(信符)를 사용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볼 때 수문장의 역할을 매우 중시했으며 제도정립에 노력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후 수문장 제도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조선후기 1895년 고종에까지 이르게 된다. 수문장은 크게 궁궐수비를 비롯하여 왕실 호위기능과 수도치안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국가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역사적 사실로 남아 오늘날에는 “수문장 교대식”이라는 문화행사로 거듭나게 되었다(김윤희, 2001:47).

1. 영국 왕실근위대와 한국 수문장의 복장

1) 왕실근위대 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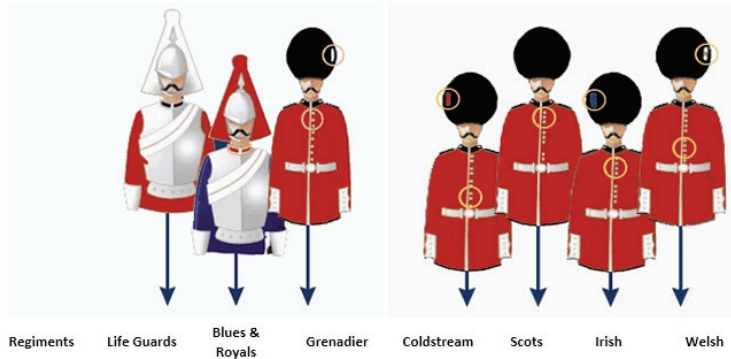
<그림 4>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실근위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연대의

복장을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라이프가드의 제복은 붉은색 상의 제복과 금속헬멧에 하얀 깃털이 꽂혀 있다. 제복에는 단추가 전혀 없으며 겨울에는 붉은색 외투를 걸치기도 한다. 기승시는 흰색바지에 긴부츠를 신고 있다. 금속 스파이크 헬멧(알버트 헬멧)은 로얄 홀스가 1842년부터 지속해서 사용되다가 1942년 다시 채택되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블루스앤로열스는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 105 보병 연대에 승리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것은 오늘 날 합병된 연대의 제복에서 왼쪽 소매에 독수리를 엠블럼으로 새겨 넣어 이를 기념하고 있다. 이들의 제복은 파란색(실제는 검은색)이고, 금속헬멧에는 붉은 깃털이 꽂혀 있다. 제복에는 단추가 전혀 없으며, 겨울에는 검정색 외투를 걸치기도 한다. 기승시는 흰색바지에 긴 부츠를 신는다.

그레너디어가드는 하얀색 깃털을 곱털모자의 왼쪽에 착용하고 제복 단추는 일정한 간격으로 8개가 있다. 옷깃의 Badge는 수류탄 모양, 어깨 견장은 로얄 암호가 그려져 있다. 척탄병이라는 명칭은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군의 제국 근위대 척탄병들을 격파한 공으로 하사받은 것이다(영국 왕실근위대, 2014). 콜드스트림가드는 붉은 깃털을 곱털모자의 오른쪽에 꽂으며, 제복 단추는 2개 4조로 총 8개가 있다. 옷깃의 Badge는 가터스타 모양, 어깨 견장은 로즈가 그려져 있다. 스코츠가드는 곱털모자에 깃털이 없으며, 제복 단추는 3개 3조로 총 9개가 있다. 옷깃의 Badge는 영경귀 훈장, 어깨 견장은 영경귀 스타가 그려져 있다. 아이리쉬가드는 곱털모자의 오른쪽에는 성자 패트릭을 기린 푸른 깃털을 달고 있으며, 제복 단추는 4개씩 2조로 총 8개, 옷깃의 Badge는 세잎 클로버, 어깨 견장은 성 패트릭 스타가 그려져 있다(Christopher Chant, 2013:81).

월쉬가드는 흰색·초록색·흰색 깃털을 곱털모자 왼쪽에 꽂으며, 제복 단추는 5개 2조 총 10개가 있다. 옷깃의 Badge는 평신도 모양, 어깨 견장은 평신도 모양이 그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왕립 기마포병대는 보병연대와 같은 곱털모자를 쓰지 않고 있으며, 검은색 제복에 가슴에 노란색 수실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 왕실근위대를 조직하고 있는 각 연대의 복장은 1940년 크롬웰 신형군(New Model Army)을 기점으로 각 전투에서 얻은 전공을 높이 평가하여 이를 기념하는 측면과 전투시 전략적인 의미를 복장에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각 연대별 복장 구분

(출처 : 가드교대식, 2014)

〈표 1〉 각 연대별 복장 특징

연대 구분	Life Guards	Blues and Royals	Grenadier Guards	Coldstream Guards	Scots Guards	Irish Guards	Welsh Guards
모자깃털	헬멧 위	헬멧 위	왼쪽	오른쪽	없음	오른쪽	왼쪽
깃털 색	흰색	빨강	흰색	빨강	없음	푸른	녹색 · 흰색 · 흰색
제복버튼	없음	없음	일렬 8개	2개씩 4조 총 8개	3개씩 2조 총 9개	4개 2조 총 8개	5개 2조 총 10개
제복단추	빨강	푸른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빨강
모자	금속 헬멧	금속 헬멧	곰털모자	곰털모자	곰털모자	곰털모자	곰털모자

(참고 : David Griffin, 1985:33-40; WY Carman & Richard Simkin, 1985)

그 예로 붉은색의 제복은 현대 전쟁에서는 목표물로 노출되는 약점이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선 근접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중요인물에 대한 구별성이 불가능하게 하여 소총부대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적에게 공포심 유발 효과와 더 많은 병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곰털모자의 경우 키가 커보이게 하는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이들의 복장과 모자는 대영제국의 상징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전통으로 이어져오면서 현대 군복과 패션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수문장 복장

국내 수문장 교대식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복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광화문 교대식의 복장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문장은 관료들이 관목으로 잦은 전시행정에 의해 제작되어 무인의 복장으로 사용된 홍색 요선철릭을 입고 있으며, 손에는 환도, 머리에는 핑에 깃털을 꽂은 붉은 죽전립을 쓰고 있다(민승기, 2004:368-367; 양승옥, 2001:43). 수문장 보좌 및 출문부를 관리한 종사관은 철릭과 방령을, 궁성문 파수를 담당하고 있는 정병은 철릭을 입고 있다. 또한 궁성문 파수의 역할을 한 대졸은 철릭 복장, 궁성내 시각전 달을 담당할 전루군은 네모진 형태의 목선을 보여주어 목이 들어가는 부분이 편하도록 사각형으로 넓게 만든 방령을 입고 있다(이민주, 최은수, 2007:175).



<그림 5> 광화문 수문장 교대식 복장

(출처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그림 6> 대한문 수문장 교대식 복장

(출처 : 대한문 수문장 교대식, 2014)

조선 영·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대한문의 수문장 교대식의 복장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문장은 투구 혹은 주립, 비갑과 두정갑, 왼손에는 환도 오른손에는 등채(지휘봉)를 들고 있다. 수문군은 협수포와 병거지, 능장수와 협도를, 교대의식을 관리하는 승정서주서는 날개가 없는 사모에 녹관복을 착용하고 있다(박진주, 1966:36). 궁궐내 문의 자물쇠와 열쇠를 관리하는 임무를 하는 액정서 사약은 홍철릭에 주립을 착용하고 있고, 행진간 군악 연주를 하는 취라칙은 홍철릭에 황립, 교대간 신호를 보내는 업무를 담당하는 엄고수는 양 날개가 있는 사모를 착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국내 수문장 교대식에 참여하는 인력의 복장과 무기, 기타 소품을 살펴 보았다. 국내의 교대식은 신분을 알려주는 다양한 복장의 화려함을 볼 수 있었고, 직책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무기와 소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적하자면 두 교대식에 임하는 병사의 시대적 배경을 달라 고증한 복장과 무기라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무기의 종류는 물론 착용법이 그러하다. 이것은 시대의 차이에서 나타난 고증의 결과라기보다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발생한 문제로 생각된다. 따라서 철저한 고증은 계속되어야 하고, 관광자원 활용차원의 일환으로 지나친 화려함은 교대식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2. 영국 왕실근위대 교대식과 한국 수문장 교대식 비교

1) 영국 왕실근위대 국가 의식행사와 교대식

영국의 왕실 근위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연대들은 버킹엄 궁과 윈저 궁, 런던타워, 홀스가드 광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공식의식과 상시적으로 행하는 교대식에 투입된다(영국왕실, 2014).

먼저 국가 의식행사를 살펴보면 첫째, 여왕의 생일 군사 퍼레이드로 매년 6월에는 주권자의 공식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왕실근위대 군기분열식이 왕실가족, 초청인사, 그리고 일반인 참여한 가운데 호스광장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대략 1,4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식 행사는 1748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여왕에 대한 예우의 21발 예포 그리고 런던의 편안을 기원하는 20발의 예포를 포함하여 41발의 예포가 발사되는 왕정예포식(Royal Saluts)이 거행 된다(문화관광부, 2006:41).

둘째,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의회개회를 알리는 행사가 있다. 버킹엄 궁에서 마차로 여왕 내외는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하는 행렬이 시작된다. 행렬에는 근위기병이 에스코트를 맡고 그 뒤에는 밴드가 뒤따른다. 행렬 도로 옆에는 근위보병이 삼엄하게 경비에 임하는데, 이 오프닝 행사는 많은 군중의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다. 이후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여 관례에 따른 간단한 의식을 치루고, 여왕 내외는 의회에 입석, 여왕의 개회 연설이 시작되는 공식의식 행사이다.

셋째, 외국 원수 방문에 대한 의식으로써 영국여왕이 초청하는 국민방문은 외국 원수 가운데 연간 두 명만 자신의 관저인 버킹엄 궁에 초청해, 최상의 이전과 예우로 국민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으로 국가원수는 초청된 기간 동안 버킹엄 궁에 체류하게 되며 모든 행사 역시 왕실 소유의 장소 또는 왕실의 주선에 의해 진행된다. 특히 외빈에 대한 영국의 전통적인 의전은 공식 환영행사로 개최되는 버킹엄 궁까지의 마차행진을 꼽을 수 있다(문화관광부, 2006:42).

넷째, 트리트잔은 전쟁시 유용하게 사용된 북의 실용성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6월 런던 중심에서 열리는 행사이다. 일몰직전에 시작하여 밤까지 왕실근위대와 함께하는 7개의 밴드가 모두 참여하며 다양한 군사음악을 선보인다.

다음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첫째, 버킹엄 궁에서의 The Queen's Guard 교대식은 여왕이 있을 때는 장교 3명, 사병 40명, 없을 때는 장교 3명, 사병 31명으로 구성되어 밴드와 함께 참여한 가운데에서 진행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 근위기병도 교대식 행렬에 동행하는데 여왕이 있을 때는 담당관 1명, 주요상병 1명, 하사관 2명, 기병 10으로 구성되고, 없을 때는 하사관 2명, 10명으로 그 수를 변경하기도 한다. 모든 교대식 중에 버킹엄 교대식 중 규모가 제일 크다.

둘째, 1945년 지어진 호스가드 광장(Horse Guards Parade)과 정문에서 이루어지는 근위기병 교대식(The Queen's Life Guard)이다. 근위기병은 오전 10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고 이외 시간은 보초병이 근무에 임한다(시공사편집부, 2008:619).

셋째, 원저성 교대식은 근위보병과 밴드가 주축이 되어 교대식을 실시한다. 버킹엄 궁보다 인원이 훨씬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궁궐경비에 들어갈 팀 15명의 근위보병이 밴드와 함께 성안에 들어와 이전 근무자와 교대하는 의식이다. 왕이 기거할 때는 성의 사각 잔디밭에서하고 기거하지 않을 때는 성 언덕 기슭에서 실시한다.

넷째, 런던타워 교대식은 오후 3시 근위보병 교대식이 이루어지며, 야간에는 타워

에서 바르가 근위보병과 동행하여 타워 게이트를 잠그는 의식으로 134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또 하나의 근위대 교대식이다.

이상으로 근위대가 참여하는 공식의식 행사와 교대식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식의식 행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참여하는 국가 의례와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 영국의 헌법에 따라 영국의 여왕은 영국의 국가원수이자 군주이다. 다만 명예혁명 이후 군주는 정치참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19세기말에는 정치면에서 군주의 역할이 최소화되다가 오늘날에는 국가의 중립적 수반의 역할을 하면서 의회를 소집, 해산하며 법안을 재가한다. 또한 총리와 각료를 포함한 주요 관리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위키백과, 2014). 따라서 왕실의 결혼식, 장례식, 여왕의 생일과 함께하는 근위대 군기분열식, 대관식, 외국원수 접대 등은 하나의 중요한 국가 공식의식 행사로서 관광에 초점을 맞춘 행사가 절대 아니라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근위병 교대식은 생각보다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다. 이미 온라인 영상을 통해 근위병 교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알겠지만 밴드와 근위보병, 근위기병 등이 등장했다가 임무를 교대하는 정도로 교대식은 종료된다. 따라서 기대 이상의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인 그들의 임무일 뿐이다. 다만 근위병 교대식은 유명한 대영제국의 정신적 지주를 상징하며, 영국 근위연대의 역사가 매우 깊은 만큼 그 위엄을 전통처럼 계승해오면서 자연발생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한국 수문장 교대식

수문장 교대식은 1995년 영국 왕실근위대를 바탕으로 관광상품 차원에서 개발하여 96년에 덕수궁 대한문을 시작으로 2001년까지 개최,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돈화문으로 변경하게 됐다(서울시, 2006:1). 이후 2006년부터 다시 대한문에서 지금까지 매년 대행업체를 통해 교대식이 열리고 있다. 2002년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도 경복궁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한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열리고 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한문 수문장 교대식은 대략 68명의 인원이 조선 영·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재현하고 있고, 경복궁 광화문교대식은 대한문과 달리 조선전기를 배경으로 70명의 인원이 재현을 맡아 오고 있다.

대한문의 교대식 내용을 살펴보면 수문장을 중심으로 초엄, 중엄, 삼엄이라는 순서로 이어지는데, 궁성문의 열쇠 인계, 순장패 인수인계, 얼굴을 마주하여 신원을 확

인한 후 교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대를 마친 후에는 의장기수와 함께 승례문까지 순찰하는 것으로 약 20분간의 의식이 종료된다. 광화문 교대식은 취타대 출발 초입 수문군 출발 좌, 우 수문군 중앙 어도에 도착, 수문군 배치를 위한 4줄 만들기, 수문군 광화문 도착, 광화문 전군배치 후 이엄, 광화문으로 수문장 이동, 당직 수문장, 교대수문장 군례 및 신분확인, 교대를 마친 당직수문군 광화문 안쪽으로 이동, 근무할 수문군 광화문 앞 배치준비 정렬, 광화문 배치완료, 당직수문군 퇴장 준비, 삼엄, 삼엄 후 당직수문군 퇴장 순서로 진행된다(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이와 같이 오늘날 서울의 주요 고궁에서 행해지는 수문장 교대식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복장과 무기, 각종 의장물과 교대식 내용을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실감나게 재현해냄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고, 전통을 계승하는 교육적인 가치는 물론 이색적인 조선시대 왕실 경비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

다만, 철저한 고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그 한 예로, 지금의 덕수궁은 인조 1년(1623년)을 기록을 살펴보면 보면 “임진왜란 때 궁궐이 불타버리자 선조가 돌아온 뒤 임시로 정릉동의 민간 백성 집에 거처하면서 경운궁이라 일렀는데, 그 뒤에 광해군이 인목대비(仁穆太妃)를 유폐시키고 서궁(西宮)이라 일컬었다. 이때에 이르러 선조(先祖)37가 침전(寢殿)으로 쓰던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본주(本主)에게 되돌려 주라고 하교하였다”(인조 실록, 1653)라고 전하며, 영조 49년(1773년)에는 “임금이(영조) 선왕을 추모하기 위하여 왕세손(王世孫: 정조)과 더불어 경운궁에 나아가 즉조당(卽祔堂)에서 사배례(四拜禮)를 행하였다”(영조실록, 1781)라는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 궁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896년 아관파천 후 1년이 지난 1897년 9월에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한 뒤 정궁(正宮)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분석해보면 영·정조 시대에는 궁궐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던 당시의 경운궁에 과연 지금과 같은 성대한 교대식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3. 영국 왕실근위대와 한국 수문장의 비교 분석

우리는 흔히 덕수궁이나 경복궁에서 열리는 교대식을 보게 되는 순간, 영국 버킹

검 궁에서 펼쳐지는 근위병 교대식을 쉽게 연상하게 된다. 왜냐하면 수문장 교대의식을 계획하는 초기 단계에서 영국의 것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일 것이다. 19년에 가까운 덕수궁이 교대식이나 2002년 뒤 늦게 시작한 경복궁 교대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하나 비견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루어 본 내용을 보면 유사점도 있는 반면 차이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영국왕실근위대와 국내 수문장을 비교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점을 찾아보자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왕을 호위하고 궁을 경비하기 만들어진 특수한조직의 업무 장면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대식 절차는 물론이고 위풍당당함은 차이가 없을 정도다. 또한 교대식이 수백 년 간 이어져 온 특별한 전통을 계승함으로써 얻어지는 교육적, 경제적 가치는 물론,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영국은 여왕이 존재함으로써 영국정규군 고위연대들이 왕실 근위대에 소속되어 왕 호위, 궁 경비, 국가 의식행사 등의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병력의 일부는 해외 전투 실전 배치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반면 서울 고궁에서 펼쳐지는 교대식에 투입되는 인력은 서울시와 계약한 대형업체들을 통해 선발되고 있고 일부는 직접 주관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계약제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 왕실근위대는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의 의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인을 선발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에 비해 국내의 사정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한정된 예산지원으로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둘째, 이미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은 영국 왕실근위대 교대식은 본래 그들의 상징인 국왕을 호위하고 궁을 경비하여 최종적으로 군주의 안녕을 위함이었다. 또한 각종 국가 의식행사는 19세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상황에서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50주년 기념일을 성대한 국가 의식행사를 계획적으로 개최해냄으로써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국가 의식행사의 핵심 인물인 군주와 함께 동반하는 영국 왕실근위대 또한 관심의 대상으로 되어 오늘날 영국의 오랜 전통이라는 명분하에 정교하게 발전되어 온 것이다. 이제 영국왕실과 근위대는 영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국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산업에게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수문장 교대

식을 처음으로 계획한 취지가 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되어, 사료를 바탕으로 전통을 더듬어 가는 재현행사다. 따라서 영국의 그것과 수문장 교대식은 기본적인 취지와 실제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왕실근위대 병사들은 필요한 기본실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철저히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증거는 각 연대의 웹사이트에서 영국왕실에 대한 충성, 의식임무와 전투임무, 자부심 등을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교대식의 경우에는 대행업체 혹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뿐 아니라, 교대식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왕실이 존재하지 않는 국내의 상황과 문화재연행사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왕실근위대와 국내의 교대식 인력 사이에는 전통계승 의식, 왕실에 대한 충성심, 사명감, 자부심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복장과 무기를 살펴보면 영국 왕실근위대는 화려함보다는 통일성 있는 복장에 각각의 연대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 표식을 부착하여 구분을 두고 있으며, 현대 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전통과 실용성이 어우러져 있다. 수문장 교대식의 경우 복장과 무기는 조선시대 사적자료 고증을 통해 복원한 결과, 수문장 및 구성원들은 직책과 임무별로 다르게 착용하고 있다. 무기는 사실에 가까운 소품이고, 복장은 수수한 느낌보다는 화려함을 강조하여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영국 왕실근위대의 조직과 임무를 살펴보고, 또한 왕실근위대 교대식과 한국 수문장 교대식을 비교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첫째, 왕실근위대는 육군정규군 소속의 정규군인인 동시에 왕실근위대 사단으로 소속된 2개 근위기병연대와 5개의 보병연대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왕실근위대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연대는 나름대로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오고 있으며, 왕 호위, 궁 경비, 국가 의식행사 등의 임무 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왕실근위대 복장은 크롬웰 신형군 이후, 군주를 호위하거나, 여러 전투에

임하면서 공적을 인정받아 각각의 연대들이 표식으로 차별화를 두었고, 전투 시 전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넷째, 수문장 교대식의 복장과 소품은 조선시대 사적자료를 통해 고증되어 한국을 상징하는 오색으로 되어 치장되어 있으며, 당시의 계급에 따라 복장을 달리하고 있다.

다섯째, 왕실근위대가 행하는 의식행사의 경우, 우리의 대통령이 국가의례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근위대의 교대식은 일상적인 업무로 그 전통을 지켜옴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영국을 상징하는 관광상품이 되었다.

여섯째, 수문장 교대식은 조선전기와 조선 영·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도성, 궁궐문을 경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고증을 거쳐 당시 상황을 재현해 내는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었다.

일곱째, 왕실근위대 교대식과 수문장 교대식은 군주의 안녕과 도성 및 궁궐을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라는 것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이자, 관광상품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여덟째, 왕실근위대 교대식과 수문장 교대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영국의 경우 입헌군주제로 엄연히 왕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국내의 경우 왕실이 사라진 상황이라 교대식을 구성하고 있는 병력과 관리체계, 실제성 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대식의 본래의 취지를 살펴보면 왕실근위대 교대식은 일상적인 업무이며, 한국 교대식은 문화관광콘텐츠라는 점에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이미지는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의 여왕과 왕실근위대는 영국의 상징이자 이미지가 된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그에 비해 우리는 전통문화 재연행사라는 미명하에 관광상품으로 주력하는 근시안적인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독특하고도 차별화된 우리만의 것을 발굴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도 없을 것이며 식상한 행사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서울 고궁을 배경으로 한 수문장 교대식을 접하는 많은 관람객의 의견과 기사보도 자료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대다수가 영국의 근위대 교대식과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뿐 만이 아니라, 고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즉흥적으로 영국 근위대와 연관 짓는다. 우연한 일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수문장 교대식을 계획했던 초기에 영국의 것을 벤치마킹했다는 사실 유추해보면 우연의 일치도 아니며, 비견하는

것 자체가 그리 놀라울 만한 일도 아니다. 이것은 철저한 고증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 수문장 교대식이 그 시대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적인 요소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로 일반인도 사적자료에 대한 정보수집이 용이해지면서 고증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수 없이 지적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기존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다음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국내의 교대식은 왕실 경비문화의 단면인 수문장 제도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왕실 호위 및 경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물론 왕실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왕을 직접 호위했던 기관, 왕의 행렬, 왕실 전통의례 등을 현행 수문장 교대식과 연계하여 재현행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국방부의 전통의장대와 군복무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적합한 인재를 선발·운영함으로써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 사명감, 책임감, 의무감 등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현행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담조직은 평상시 문화재현 행사 임무를 부여하고, 국가의전 및 의례 등에 투입한다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서구식 의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전통 의전의 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원화된 지금의 운영주체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시대적 배경 또한 통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배경은 2~3년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현재의 두 장소는 당시 궁의 기능에 맞게 내용을 설정한다면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영국의 역사, 군사, 문화, 전통을 내포하고 있는 왕실근위대와 같이 국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남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재현행사는 전통문화 속에 깃든 내적인 미와 정신 그리고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만의 차별화된 왕실 호위·경비 문화로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된 자료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분석하는 것은 올바른 한국의 경호, 경비사를 정립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광해군일기(1653). 광해 152권, 12년(1620) 5월 26일, 1번째 기사.
- 광해군일기(1653). 광해 161권, 13년(1621) 2월 3일, 1번째 기사.
- 김윤희(2001). 조선시대의 수문장 제도를 통해 본 왕실경호체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박성수(2005).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컨벤션학회**, 5(2), 72.
- 레바캉스 편집부(2003). **레바캉스 가이드북 컬렉션**. 서울. 레바캉스.
- 문화관광부(2006). **국가의전의 문화적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민승기(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서울. 가람기획.
- 민진(1999). 영국의 국왕과 정치행정체제. **황실학논총**, 4, 249-250.
- 박진주(1966). 우리 복식사상에서 본 수문장에 대한 소고. **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36.
- 배낭박(2006). **TRAVEL WORLD EUROPE**. 서울. 여행천하.
- 서울시(2006). **서울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확대 추진보고서**. 서울. 서울시.
- 선조실록(1616). 선조 29권, 25년(1592) 8월 16일, 3번째 기사.
- 선조실록(1653). 선조 52권, 27년(1594) 6월 26일, 1번째 기사.
- 시공사편집부(2008). **로맨틱 기차여행(2008-2009) 최신개정판**. 서울. 시공사.
- 심승구(1999). **조선 후기 수도방위체제**. 서울. 서울학연구소.
- 양승욱(2001). 패션 한복의 디자인을 위한 철리의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영조실록(1781). 영조 120권, 49년(1773) 2월 1일, 1번째 기사.
- 이민주, 최은수(2007). 조선시대 방령의 확산과정과 그 의미. **한복문화학회지**, 175.
- 이식, 전원경(2007). **영국 바꾸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서울. 리수출판.
- 인조실록(1653). 인조 2권, 1년(1623) 7월 12일, 3번째 기사.
- 조영갑(2005).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서울. 선학사.
- 주연중(2010). 영국혁명과 올리버 크롬웰의 상관성 고찰 : 그의 신앙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대학원.

2. 국외 문헌

- Bartlett Thomas & Jeffery Keith(1997). *A Military History of Irelan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rles Grant & IIIustratedby Michael Roffe(2005). *The Coldstream Guards*, Oxford : Osprey Publishing.
- Charles Heyman(2011). *The British Army : A Pocket Guide, 2012-2013*, Pennsylvania : Casemate.
- Christopher Chant(2013). *Handbook of British Regiments*, New York : Routledge.
- David Fraser & IIIustrated by Angus Mc Bride(2002). *The Grenadier Guards*, Oxford : Osprey Publishing.
- David Griffin(1985). *Encyclopaedia of modern British Army regiments*, Welling borough : P. Stephens.
- Frank Clark(2013). *We Were Brothers In Arms*. Leicester : Troubador Publishing.
- Fraser & David(1998). *The Grenadier Guards . Men-at-Arms Series # 73*. Oxford : Osprey Publishing.
- Ian F. & W. Beckett(2008). *Discovering British Regimental Traditions*, Shire BUKinghamshire : Publications.
- IraRutkow(2010). *Seeking the Cure: A History of Medicine in America*,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 Irish Guards(2000). *Irish Guards : The First Hundred Years 1900-2000*, Kent : Spellmount.
- James Lear(2013). *The Secret Tunnel*, San Francisco : Cleis Press.
- Lincoln Hallinan(1995). *British Commemoratives: Royalty, Politics, Warand Sport*, Suffolk : Antique Collectors Club.
- Paul Stevens(2008). Bunyan, the Great War, and the Political Ways of Grace, *Oxford Journals The Review of English Studies*, 59(242), 701-721.
- Peter Doyle & Chris Foster(2010). *British Army Cap Badges of the First World War*, Oxford : Shire Publications.
- Simon Dunstan(1996). *The Guards : Britain 's household division*, London : Windrow & Greene.
- Toby Harnden(2010). *Dead Men Risen: The Welsh Guards and the Defining Story of Britain's War in Afghanistan*, London : Quercus.
- Wikipedians(2014). *Royal Artillery*, E-Book : PediaPress
- W. Y. Carman(1973). *The Royal of Review Rrsonn Artillery*, Oxford : Osprey Publishing.
- W. Y. Carman & Richard Simkin(1985). *Richard Simkin 's Uniforms of the British Army : Infantry, Royal Artillery, Royal Engineers and other corps*. Exeter, Devon : Webb & Bower.

3. 기타

- 가드교대식(2014). Changing the Guard, How to Identify the Regiments of the Household Division, <http://www.changing-the-guard.com/guard-regiments.html>, 검색일 , 2014. 4. 5.
- 그레너디어가드협회(2014). Grenadier Guards, The Grenadier Guards, <http://gengds.com>. 검색일 2014. 4. 5.
- 근위기병박물관(2014). Household Cavalry, The Household Cavalry Museum, <http://www.householdcavalrymuseum.co.uk/about.php>, 검색일 2014. 4. 10.
- 덕수궁수문장교대식(2014). 전통문화순라, 왕궁수문장교대식절차, <http://www.royalguard.kr/board.php?board=kor1&command=body&no=2>, 검색일 2014. 4. 10.
- 동아일보(1995, 11, 4). 왕궁 수문병교대식 재현. 29면.
- 영국왕실(2014). Royal ceremonies, Royal Events and Ceremonies, <https://www.royal.gov.uk/RoyalEventsandCeremonies/Overview.aspx>, 검색일 2014. 4. 1.
- 영국왕실근위대(2014). household division, Bands-The Household Division-Official site, <http://www.householddivision.org.uk/regiments>, 검색일 2014. 4. 15.
- 영국육군(2014). British Army, Homepage-British Army Website, <http://www.army.mod.uk/28089.aspx>, 검색일 2014. 4. 28.
- 예오맨가드(2014). yeomen of the guard, The Queen's Body Guard of the Yeomen of the Guard, <http://yeomenoftheguard.com>, 검색일 2014. 4. 13.
- 위키백과(2014). 근위기병대, household division, http://en.wikipedia.org/wiki/Household_Division, 검색일 2014. 4. 5.
- 위키백과(2014). 영국, 군주제, <http://ko.wikipedia.org/wiki/%EC%98%81%EA%B5%AD>, 검색일 2014. 4. 18.
- 중앙일보(2006, 4, 26). 영국 근위기병대. http://pdf.joins.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0604280087. 검색일 2014. 4. 24.
- 한국문화재보호재단(2014). 경북궁수문장교대식, <http://www.chf.or.kr>, 검색일 2014. 4. 10
- Defence News(2010, 1, 22). Team chosen to relocate King's Troop to Wool wich, <http://archive.today/KwNO>, 검색일 2014. 4. 10.

【Abstract】

Implications from Analysis on the U. K. Household Division

Bang, Whan-Bog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what the Korean traditional changing of SooMunJang and the United Kingdom's ceremony of changing the guard suggests us by performing comparative analysis as well as research of the United Kingdom Household Division's history of transition, organization, and their missions since 1660.

The Royal Household is a constitutional monarchy and served by the Household Division for 350 years as a symbol of the United Kingdom. The Household Division is a regular army that is affiliated to British Army. The Guards Division consists of two cavalry regiments and five infantry regiments along with the King's Troop, Royal Horse Artillery. The Household Division not only escorts the king, guards royal palace, and attends a official function, but also dispatched to a combat area as the most elite troops.

Similarities in aspect of king escort, palace guard, and succession of tradition were found from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the United Kingdom's changing of the guard. On the other hand, fundamental purpose and objective, process of forming a tourist attraction, organization were distinctive.

While the Household Division and the Royal Household became a worldwide symbol of the United Kingdom, Korean changing of SooMunJang is insufficient to represent Korean traditional royal guard custom and just reenacting historical tradition to emphasize the succession of tradition and to develop tourism. Therefore, this research is suggesting methods to improve the cultural contents of distinctive Korean traditional royal guard and escort of royal family.

Key words : Household Division, Household Cavalry, Foot Guards, Royal guard,
Changing the guard